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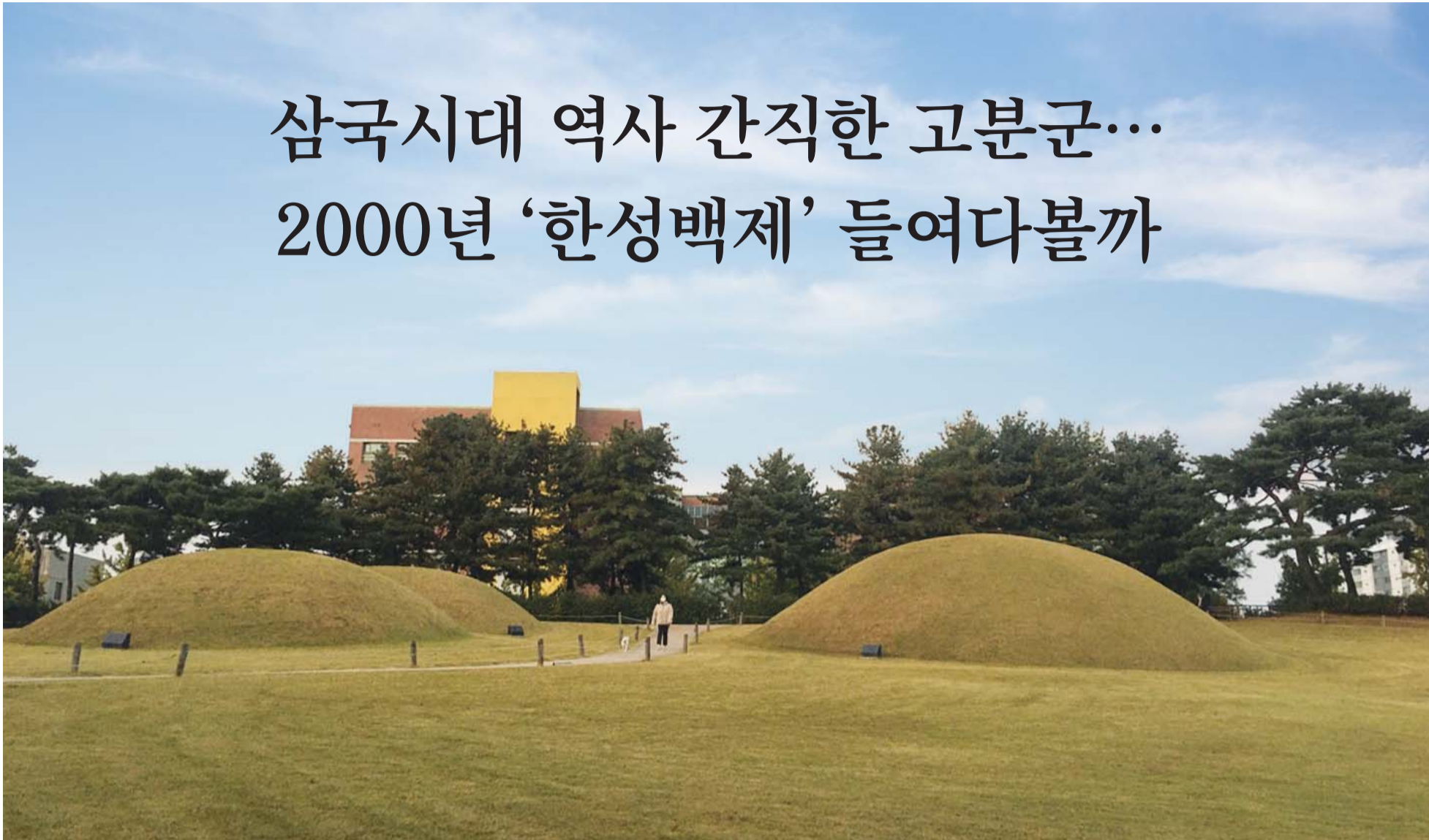


[라이프] CJ제일제당 100% 생분해 플라스틱 만든다 L1



Life

[AI·중소] 삼성시포럼 2020 "인간 중심의 AI 웰니스 연구 중요" L4



삼국시대 역사 간직한 고분군... 2000년 '한성백제' 들여다볼까

지난달 26일 방이동 고분군을 찾은 시민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현정 기자

되살아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고분군'

천문학자들이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항성의 온도, 질량, 구성원소를 유추해내듯 역사학자들은 유적을 조사해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본다. 특히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은 전통성과 보수성이 강해 당대 정치·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방이동 고분군도 그 중 하나다. 이 지역 고분은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강남지역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되면서 서울은 백제유적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 고구려에 밀려 공주로 천도할 때까지 이 일대가 수도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서울의 역사는 조선 시대에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한성백제 시대까지를 아우르게 된다. 600년 수도에서 2000년 수도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8기만 남은 삼국시대 무덤

지난달 26일 방이동 고분군을 찾았다.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오금사거리 방향으로 10분(608m)을 걸으면 방이동 고분군이 모습을 드러낸다. 푸른 초원에 무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데 어린 시절 TV에서 본 텔레토비 동산 같다. 가락동에서 온 이모(54) 씨는 "운동하러 자주 찾는 곳인데 한성백제 시대 유적치고는 좀 소박한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볼거리 하나 없지만 조용해서 좋다"고 말했다.

과거 방이동 고분군엔 삼국시대 무덤이 얇은 능선을 따라 즐비했지만 현재 8기만 남아있다. '서울 백제고분의 보존과 발굴'



방이동 고분군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다.



방이동 제1호분 모습.

강남 개발로 백제유적 드러나 기원전 한성백제 시대 알려져

전문가 오판으로 8기 남기고 멸실 뒤늦게 보호구역 넓히고 복원 정비 유네스코 등재 진행 상황도 관심사

논문에 따르면, 1976년 6기(1~6호분)가 발굴 조사됐다. 방이동 고분의 외형은 석실봉토분이다. 1·4호분은 궁륭형의 천정을 하고 있고, 6호 고분은 주실과 부곽이 겹비된 터널형의 횡형식 석실묘로 만들어졌다. 방이동 고분군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m에 위치한 5호분은 장방형의 석곽으로 축조됐다.

당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잠실지구 유적발굴조사단은 서울시장에 보내는 건 의서에서 "방이동 지구의 5기의 석실분 이외 지구는 파괴석실분과 기타 유적들이 있

으나 그 훼손된 정도로 보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채토, 削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1985년 정부의 '서울 백제고도 문화유적 종합복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6호분 남쪽에서 약 100m 사이에 길을 두고 분리됐던 7·8호분을 추가로 발굴하면서 이 부근에서 2기(9·10호)의 고분이 새로 발견됐다.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는 "몇 기 남지 않은 서울 백제 고분이 전문가 집단의 오판으로 인해 무참하게 멸실됐다"면서 "이것이 당시 서울 백제유적 보존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관계당국은 이미 도로와 택지 조성으로 묘역이 단절됐던 지역을 재매입하고 두 구역 사이의 공간을 연결했다. 보호구역은 원래 면적보다 6배 커진 9000여평으로 넓어졌고, 1988년 9월 13일 사적 제270호 방이동 고분군이 복원 정비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유네스코 등재는 언제쯤?

이날 방이동 고분군에서 만난 직장인 윤모(35)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안 된다' 말이 많다"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백제 한성시대 도성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내용은 ▲서울 백제역사유적과 인접지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유산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홍보 방안 ▲경주 등 고대 역사유적지구 활용 현황 ▲지역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창출 및 연계방안 등이다. 연구 결과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시 학술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